

# 7. 제주

나라사랑 역사의 길

## 제4편\_6·25전쟁 후방 지원 기지, 제주에 가다

‘나라사랑 역사의 길’은 독립기념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국내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기록물이다. 이 길은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사적지를 중심으로 현충시설, 전근대 역사유적, 경관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역사의 길로, 우리나라 989개의 독립운동시설과 1,322개의 국가수호시설 등 총 2,311개의 현충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탐방 코스를 제공한다.

도로교통 저널에서는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알리고, ‘나라사랑 역사의 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획 연재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주 서귀포 일대의 6·25전쟁 사적지를 돌아보고 6·25전쟁 지원 활동과 후방 기지 역할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탐방로 안내

제주 서귀포 일대는 6·25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사적지가 위치해 있어, 전쟁 당시의 지원 활동과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탐방지로 손꼽힌다. 탐방로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시작으로 옛 육군 제1훈련소, 남제주 강병대교회, 모슬포 포로수용소, 알뜨르 비행장, 법정사 터(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발생지), 서귀포 천주교 항일운동지까지 이어진다. 이 탐방로를 따라 이동하는 데는 드라이브로 약 226분이 소요되며, 역사적 의미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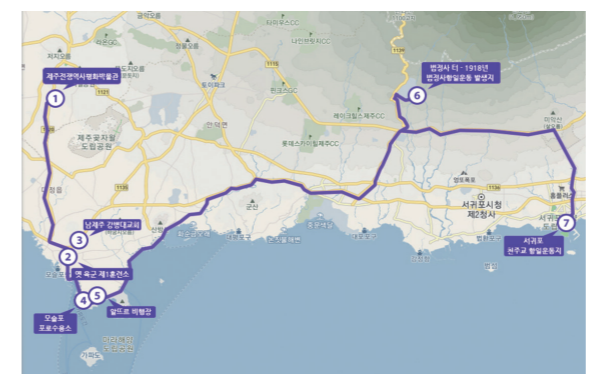
**탐방로 안내**

- 1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 2 옛 육군 제1훈련소
- 3 남제주 강병대교회
- 4 모슬포 포로수용소

- 5 알뜨르 비행장
- 6 법정사 터(1918년 법정사항일운동 발생지)

**지역**

제주 서귀포 일대(총 드라이브 소요시간 약 226분)



탐방 중에는 대정향교, 동계정온유허비, 추사유배지, 하멜기념비, 송악산 진지동굴, 백조일손지묘, 이중섭 거주지와 같은 주변 명소들도 함께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이번 탐방은 6·25전쟁과 관련된 당시 후방 기지로서의 제주도와 그 역할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 코스 개요

6·25전쟁 중 제주도는 직접 전투가 발생한 지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선이 전국을 톱날처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후방 기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6·25전쟁 기간 제주에서는 주로 병력의 훈련·동원, 그리고 무기 및 장비의 제작·보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주도 조병창 기지는 전방으로의 물자 보급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전쟁 초기 해병대 창설이 이루어졌고, 육군 제1훈련소가 위치하여 전쟁 초기 병력 충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와 비행기지가 제주에 옮겨와 전쟁 수행을 이어갔다. 제29사단이 제주에서 창설되기도 하였다. 이 코스에서는 서귀포 일대에 위치한 제주의 국가수호 사적지를 찾아간다. 우선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방문한 뒤, 상모리에 위치한 육군과 해병대의 훈련소 시설 등을 돌아보고, 하모리에 남아 있는 6·25전쟁 관련 유적을 찾아가 본다.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제주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제주평화박물관은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제주와 전쟁 역사를 보관·전시하는 관광지이다. 1,200명 수용 가능한 영상관에서는 징용자 증언과 전쟁 영상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유물과 문서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박물관 뒤편 가마오름은 일본군 지하요새로, 일부 복원되어 관람 가능하며, 정상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휴관 중이다.

■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 63

옛 육군 제1훈련소



옛 육군 제1훈련소는 6·25전쟁 중 정부가 1951년 1월 21일 설치하여 제주도 인구와 맞먹는 50,000여 명의 장병들을 육성해 전방으로 내보냈던 곳이다. 육군 제1훈련소는 서울 재탈환 등 반격의 기반을 마련하며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켰다. 1956년 폐쇄될 때까지 지휘소 본관, 막사 등 시설이 남아 있으며, 정문 기둥도 당시 모습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이곳은 1946년 육군 제9연대 창설지로서 광복 후 한국군 창설과 훈련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현재 등록문화재 제409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17

남제주 강병대교회



1952년 5월에 준공된 군인 교회로, 당시 훈련소장이었던 장도영 장군이 신앙의 힘으로 훈련생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한 곳이다. 육군 제1훈련소인 강병대가 창설되면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들이 강병대교회를 방문한 바 있다. 강병대교회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의 산교육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문을 충족시켰던 교육장이자 주요한 군사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46

모슬포 포로수용소



모슬포 포로수용소는 1951년 2월 설치된 거제도 포로수용소가 북한군 15만 명, 중공군 2만 명 등 17만 명에 이르러 수용 한계에 달하면서, 같은 해 6월 중공군 포로 5,600명이 전차상륙함에 태워져 모슬포항으로 들어오면서 설치됐다. 수용소의 정식 명칭은 '제20수용소'로, 물이 나는 곳을 고려하여 선정해 산이수동 인근에 설치하였다. 이곳으로 이송된 중공군 포로들은 산이수동과 정뜨르 비행장 등 3곳에 분산돼 수용됐다. 포로수용소 건물은 사라지고 현재 그 터와 흔적은 산이수동 해안도로 맞은편 마늘밭에 벽체만 남아 있다.

■ 제주 서귀포시 상모리 541

알뜨르 비행장



등록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된 알뜨르 비행장은 1937년 중·일 전쟁 때 처음 사용됐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는 2개의 비행장이 있었다. 정뜨르와 알뜨르 비행장이다. 이 모두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전쟁시설이다. 이후 정뜨르 비행장에는 제주공항이 들어섰고, 알뜨르 비행장은 참혹했던 전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군사 유적지로 남아 있다. 알뜨르 비행장은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로 가는 길목인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의 서북쪽 일대 204만 7천㎡의 평야지대로, 일제 당시에 구축된 군사시설인 격납고, 지하벙커, 진지 동굴 등이 산재해 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70

법정사 터(1918년 법정사항일운동 발생지)



1918년 10월, 제주도에서 국권 회복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던 법정사가 있던 곳이다. 이 법정사에 1914년 경북 지역에서 김인수·정구용과 함께 항일운동의 이력을 갖고 있던 김연일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제주 출신 승려 강창규·방동화 등과 함께 이곳을 대대적인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 제주 서귀포시 도순동 산 1

출처 : 독립기념관 국내 독립운동 · 국가수호 사적지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자료와 사진을 제공해주신 독립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